

MD/MBA 복수학위과정의 해외 운영 현황 및 국내 도입 가능성에 대한 연구*

김성문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조교수
(kims@m.yonsei.ac.kr)

지금까지 국내의 의학교육은 주로 병의원의 진료의사를 양성하는데 집중해 왔다. 그러나, 점차 의료 관련 정부 기관이나 민간 기업 등에서 의학 및 경영학 지식을 모두 소유한 전문가를 찾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병원의 대형 기업화 및 병원간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효율적이고 체계화된 경영 기법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1990년 이후 가파르게 성장해 현재 미국의 126개 의과대학 중 48개 주요 사립대학 및 주립대학이 운영중인 MD/MBA dual degree program(의학/경영학석사 복수학위과정)에 대한 관심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은 먼저 국내외적으로 의료계의 최근 동향과 의료계의 경영학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해 논하고,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MD/MBA dual degree program을 벤치마킹하여 그 유형, 특성 및 커리큘럼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의 의과대학과 경영대학의 교육 시스템의 특성을 감안하여 '한국형 MD/MBA 프로그램'의 가능한 교육과정을 제시하였으며, 이 프로그램이 도입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및 고려해야 할 사항, 영향력,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MD/MBA, 복수학위과정(dual degree program), 경영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1. 서론

의료관련 분야의 규모와 사회에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의학 지식뿐만 아니라 경영학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전문가와 지도자에 대한 사회의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대형 종합병원 및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주요 경영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같은 정부기관의 정책입안 관련자, 의료분야 관련 기관 및 단체 임원, 제약회사 및 의료-바이오-실버 산업 관련 제품 민간 기업의 경영진, 보험회사의 설계사, 의료전문 컨설팅기업의 컨설턴트 등이 되기 위해서는 의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경영 전반에 걸친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요

구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내의 의학교육은 개원 의사, 의과학자, 의학교육자를 양성하는 것으로만 목표를 국한시켜 왔으며, 경영학적 지식을 함께 소유한 인재를 배출해 내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 더불어 의료 시장의 개방, 의료기관에 의한 채권 발행, M&A 전문화, 병원평가제도의 법제화, 의료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기관 종합관리제 시행 등 시대적 변화로 인해 시간이 갈수록 의료계에도 효과적이고 체계화된 운영 및 경영 기법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메디컬투데이, 2006.12.22; 매일신문, 2006.12.19; 최희주, 2007) 또한, 기존 대학병원을 비롯한 종합병원의 초대형화 및 기업경영화, 수익 창출을 위한 중소병원들간의 치열한 무한경쟁이 진행되고 있어서 중소병원 도산율은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면허 인력과

게재확정일자: 2008. 06. 22.

* 본 논문은 한국경영학회의 지원으로 '2007년 한국경영학회 춘계 심포지엄'에서 발표하고 토론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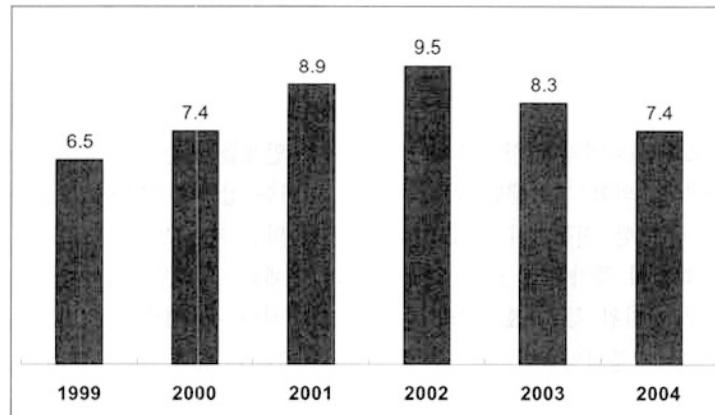
병의원의 숫자를 고려할 때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으며¹⁾〈그림 1〉, 의료계에게 경영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요소가 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2007.5.25; 국민일보, 2006.4.3)

구체적으로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경영 기법은 의료의 질 및 안전 관리(Reinertsen, 1998; Nolan, 2000), 조직의 설계(Flood et al., 2000; Bodenheimer and Casalino, 1999), 의료 의사결정(Shortell et al., 2001; McNeil 2001), 마케팅 및 홍보(국민일보, 2006.4.3), 재무관리 및 세무,²⁾ 고객 관리 및 서비스 운영³⁾ 등으로 다양하며, 이러한 다양한 경영 기법들은 병원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며, 궁극적으로 수익의 증대에 기여한다.

하지만, 의대생 및 의사들에게 체계적인 경영학 교육이 제공될 기회가 존재하는 미국과 달리, 한

실문조사 결과 현재까지 국내의 의사들 중 약 2/3 정도는 경영학 관련 교육 및 강좌를 전혀 들어본 경험이 없으며, 들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조차 주로 '학회 또는 의사회 등에서 실시하는 연수강좌'에서 비체계적으로 강의를 들은 경우가 71.8%를 차지했다. 또한, 병의원을 운영하다가 경영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 방법으로는 '다른 동료의사와 상의' (57.1%), '개인의 경험과 직감에 따라 혼자 결정' (26.2%), '친지나 가족과의 상의' (6.0%) 등 비전문적인 방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병의원 경영시 문제 발생의 원인으로 '경영관리 지식이나 기술부족' (39.3%), '회계 및 세무관련 지식부족' (19.0%), '보험관련 지식 및 운영기술부족' (16.7%)과 같이 응답했으며 '경영이나 관리에 관심이 없다'는 대답은 14.3%에 불과했다. (안덕선 외, 2004)

이러한 현실 속에서 현재 미국의 많은 대학에서 실



〈그림 1〉 중소병원 도산율 (%) (대한병원협회 보도자료, 2007)

1) 2006년 1/4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전국의 종합병원 수는 총 251개소이며, 병원은 1,139개소, 의원은 24,310개소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6)
 2) 예를 들면, 2006년 7월 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에서 전문직 세무조사를 대비한 절세 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의사들을 상대로 개인자금의 포트폴리오, 절세와 세무조사, 병원 양수도시 절세 방안 등 개원의들이 자주 대면하는 세무·경영관련 이슈에 대해 성황리에 강연회를 가졌다. (이코노믹리뷰, 2006. 8. 16)
 3) 2004년에 40개 병의원 의사 600여명이 서비스 교육을 따로 받았으며, 2005년에는 70개 병의원 의사 약 900여명이, 그리고 2006년은 2월말까지 350여명의 의사가 서비스 관련 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서비스연구소,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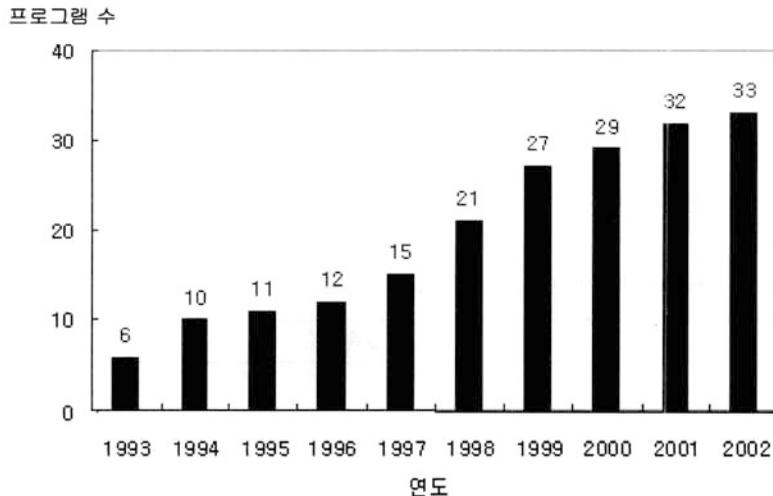
시하고 있는 MD/MBA dual degree program (이하 MD/MBA 프로그램으로 표시)을 국내에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고려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MD/MBA 프로그램은 의과대학의 학위과정과 경영대학 학위과정을 재학생들이 동시에 진행하여 두 개의 학위를 취득하고 졸업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국내에 몇몇 의료경영 관련 프로그램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주로 단기 비학위과정이거나, 아니면 학위과정이라도 주요 대상이 경험과 연륜이 쌓인 병원장, 의료 기업 CEO 및 임원, 정부 고위 관리 등 사회의 필요에 의해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진 고위층에게 제공되는 재교육 프로그램의 형태이므로, 미국의 MD/MBA 프로그램과 다르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형태인 미국 대학교의 MD/MBA 프로그램의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고, 대표적인 대학교 프로그램의 커리큘럼을 벤치마킹 한다. 그리고, 이를 국내에 도입할 경우, 한국의 의과대학 및 경영대학 교육 시스템의 특성에 맞도록 커리큘럼을 개발한 '한국형 MD/MBA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그리고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

II. 미국의 MD/MBA 프로그램 벤치마킹

2.1 현황

1990년 이후 미국에서는 MD/MBA 프로그램이 괄목할만한 성장을 해왔다. (Devlin M., 1999). Larson et al.(2003)에 의하면 미국의 MD/MBA 프로그램이 괄목할 성장을 보인 초창기인 1993년에는 MD/MBA 프로그램의 수가 불과 6개에 그쳤지만, <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수치는 점차 증가하여 2002년에는 33개 대학으로 확산되었고, 2007년 현재는 Harvard University, Yale University, Columbia University, Cornell University, Duke University,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그림 2> 미국 MD/MBA 프로그램 수의 증가, 1993-2002 (Larson et al., 2003)

of California (Los Angeles) 등으로 미국의 126개 의과대학의 38%인 48개 주요 사립대학 및 주립대학이 MD/MBA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 2007)

2.2 프로그램 교육과정

미국의 의과대학에서는 MD과정을 마치는데 보통 4년의 기간이 걸리고, MBA를 획득하는데 보통 2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MD/MBA 프로그램의 경우 많은 학교가 5년의 기간을 요구하지만, Tufts University와 Texas Tech처럼 몇몇 대학은 방학 없이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여 4년에 마치기도 하고, Dartmouth University와 같이 6년에 마치는 프로그램도 존재한다.

미국의 MD/MBA 프로그램은 학교마다 커리큘럼이 다양하지만, 분류하면 <표 1>에 나오는 두 가지 유형이 전체의 약 80% 정도로 가장 많이 채택되고 있다.

첫 번째 유형에서는 첫 2년 동안 의과대학에서 기초의학 과목을 수강하고, 3년차 때 임상실습 과정을 진행하며, 4년차 때 경영대학에서 MBA 필수 과목을 이수한다. 그리고, 마지막 5년차 때 경영학 선택과목과 나머지 임상실습을 이수하며 프로그램을 마친다.

이 유형의 장점 중 첫 번째는 학생들이 임상실습

을 경험한 후에 경영학 과정 수업을 수강하게 되므로, 임상 교육기간 동안 의료에 필요한 경영학적 지식에 대한 필요성을 파악할 수 있어 동기 부여가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기초의학 과정 이후 바로 임상실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의학적 연속성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핵심 임상실습과 선택 임상실습의 연계를 단절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의과대학에서 첫 2년간 기초의학 과목을 수강하고, 3년차가 되면 경영대학에서 경영학 과정을 이수하고, 4학년 때 다시 의과대학에서 임상실습을 진행하며, 마지막 5년차 때 경영학 선택과목과 잔여 임상실습을 마무리하고 졸업하는 모델이다.

이 유형의 장점은 핵심 임상실습과 이후 과정 사이의 공백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임상실습 없이 경영학 과정을 이수하기 때문에 의료 현실 및 병원 경영에 대한 문제 인식과 의료와 관련된 경영에 대한 선행 경험이 없어서 학습동기를 유발시키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안덕선 외, 2004)

2.3 프로그램 입학 및 학사 관리

미국에서 MD/MBA 프로그램은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이 중심이 되고, 이에 경영대학의 교육과정이 보조가 되어 있는 형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즉, 의학지식을 갖춘 의사를 배출하면서, 원하는 사람에게서는 경영학지식도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표 1> 미국 MD/MBA 프로그램의 두 가지 대표적 유형 (Larson et al., 2003)

유형	교육년도				
	1	2	3	4	5
1	기초의학	기초의학	임상실습	경영학	임상실습 경영학
2	기초의학	기초의학	경영학	임상실습	임상실습 경영학

식이다. 따라서, 의과대학에 먼저 입학한 후 추 후에 원하는 학생들은 MD/MBA 프로그램 과정에 진학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의과대학 입학과 동시에 MD/MBA 프로그램에 들어오는 형태가 대부분을 이룬다. 하지만, 대부분의 MD/MBA 프로그램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 및 경영대학에서 각각 필요로 하는 시험도 치러야 하며, 별도로 입학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국에서 MD/MBA 프로그램의 경우 등록금은 학생이 해당 년도에 공부하는 단과대학에 내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면, <표 1>에서 유형1의 경우 첫 3년 동안은 의과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4년차에는 경영대학에 납부하며, 마지막 5년차때는 학기별로 수강하며 소속된 단과대학에, 또는 이수 학점 수에 비례하여 의과대학과 경영대학에 나누어서 해당 등록금을 납부하는 식이다. MD/MBA 프로그램의 학사관리는 의과대학에서 주도적으로 모든 학생 및 학사관리를 담당하고, 경영대학에서는 교육의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2.4 미국의 주요 MD/MBA 프로그램 사례

2.4.1 Harvard University

2.4.1.1 입학허가

의과대학과 경영대학 각각에 지원하여 입학허가를 모두 얻어야 하며, 이 때 MD/MBA 프로그램에도 지원하여 처음 입학한 하자마자 이 프로그램의 교과과정에 맞추어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MD 또는 MBA 1년차 과정이 끝나기 전인 경우는 MD/MBA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고, 입학허가를 받으면 이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다.

2.4.1.2 기간: 총 5년

- 의과대학: 약 3년 반

- 경영대학: 약 1년 반

2.4.1.3 수업료

- 1, 2, 3, 5년차: 의과대학에 납부, 약 \$38,600/년

- 4년차: 경영대학에 납부, 약 \$41,900/년

2.4.1.4 교과과정

<표 2>는 Harvard University의 MD/MBA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커리큘럼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입학하는 학생은 첫 3년의 기간을 의과대학에서 보낸다. 이 기간 동안 의과대학의 본과에서 요구하는 기초의학 과목들을 마치게 되며, 의료정책 및 관리에 관한 과목 등도 수강하고, 임상실습도 진행한다. 특징적인 것은 의과대학에서 첫째 가을학기 및 봄학기 동안 기초의학 수업을 마친 후,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4-8주 기간 동안 경영관련 인턴십을 수행한다. 그리고, 4년차가 되면 경영대학에서 가을학기 및 봄학기 동안 MBA의 필수과목을 마치게 된다. 마지막 5년차에는 각자 학생이 독립적으로 결정을 하여 의과대학과 경영대학에서 본인이 필요한 선택과목을 수강하며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게 된다.

2.4.1.5 학위수여

일단 MD/MBA 프로그램으로 입학한 학생은 두 단과대학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성공적으로 완수해야만 졸업이 가능하다.

2.4.2 Columbia University

2.4.2.1 입학허가

의과대학과 경영대학 각각에 지원하여 입학허가를 모두 얻어야 한다. MD/MBA 프로그램에 들어 오기 위해서는 의과대학에서 먼저 MD과정에 입학해야 한다. 의과대학에서 MD과정 2년차를 마치기

〈표 2〉 Harvard University의 MD/MBA 프로그램 커리큘럼
(<http://www.hbs.edu/mba/academics/mdmba.html>, 2007)

연차	학기	교과 내용	
1년 (의대)	가을 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troduction to the Profession • Fundamentals of Medicine • Patient-Doctor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dical Ethics and Professionalism • Social Medicine • Health Care Management
	여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mmer-Business Internship (4-6 weeks) 	
2년 (의대)	가을 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undamentals of Medicine • Health Care Polic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tient-Doctor II • Health Management Seminar
	여름 가을 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incipal Clinical Experience • Patient-Doctor III - Management Se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imary Care Clerkship • Health Management Seminar
3년 (의대)	여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mplete Core Clinical Rotations 	
4년 (경영대)	가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inance 1 • Financial Reporting and Control •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Behavi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rketing • Technology and Operations Management • Step 2 U.S. Medical Licensing Exam
	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usiness Government and the International Economy • Strategy • The Entrepreneurial Manag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gotiation • Finance 2 • Leadership and Corporate Accountability
	여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dicine and Management" required rotation (two months) 	
5년 (의대/ 경영대)	가을 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ectives 	

전에 MD/MBA 프로그램에 지원해야 한다.

2.4.2.2 기간: 총 5년 반

- 의과대학: 4년
- 경영대학: 1년 반

2.4.2.3 수업료

- 의과대학 MD과정은 약 \$45,000/년
- 경영대학 MBA과정은 약 \$43,436/년

2.4.2.4 교과과정

- MD 과정 3년차 2학기 때나, 4년차 2학기 중에 MBA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
- MBA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3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등록하여 최소 45학점을 취득해야

하며, 첫 두 학기는 연속해서 이수해야 한다.

- 면제 시험을 통과하면 타학과 과목을 MBA 과목으로 인정하나, 총 45학점 취득 조건은 변하지 않고, 그만큼 추가로 선택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 MD/MBA 프로그램의 경영관련 필수과목 리스트는 〈표 3〉과 같다.

2.4.2.5 학위수여

일단 MD/MBA 프로그램으로 입학한 학생은 두 단과대학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성공적으로 완수하면 두 개의 학위가 동시에 수여가 된다.

〈표 3〉 Columbia University MD/MBA의 경영관련 필수과목 리스트
(http://www2.gsb.columbia.edu/students/MD-MBA_handbook.pdf)

학기	교과 내용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nagerial Economics • Accounting I • Managerial Statistics • Creating Effective Organiz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rporate Finance • Marketing Strategy • Strategy Formulation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lobal Economic Environment • Decision Models • Accounting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naging Marketing Programs • Leadership • Operations Management

2.4.3 Cornell University

2.4.3.1 입학허가

의과대학과 경영대학 각각에 지원하여 입학허가를 모두 얻어야 한다. 의과대학에서 MD과정 4년차를 시작하기 전에 MD/MBA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MD과정 4년차 1학기말까지 지원해도 입학이 가능하다.

2.4.3.2 기간: 총 5년

- 의과대학: 4년
- 경영대학: 1년

2.4.3.3 수업료

- 1, 2, 3, 5년차: 의과대학에 납부, 약 \$35,125/년
- 4년차: 경영대학에 납부, 약 \$62,600/년 (여름, 가을, 봄 3학기 동안 연속 수업 진행)

2.4.3.4 교과과정

- 첫 3년간 MD과정을 이수한 후, 여름부터 12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진행하여 경영대학에서 MBA 과정을 마치고, 이후 다시 MD과정으로 복귀하여 5년차를 마무리한다.
- MD과정 4년차 1학기 중에 MD/MBA 프로그램

램에 지원하는 학생은 MD과정을 4년동안 연속하여 먼저 마친 후, 집중과정인 Accelerated MBA과정을 1년 동안 마무리한다.

- MBA과정에서는 필수과목 20학점과 선택과목 25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2.4.3.5 학위수여

일단 MD/MBA 프로그램으로 입학한 학생은 두 단과대학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성공적으로 완수해야만 졸업이 가능하다.

2.4.3.6 기타 사항

매년 MD/MBA 프로그램에 입학하는 학생들 중 3명을 선발하여 장학금 지원 혜택이 있다.

(http://www.med.cornell.edu/education/admissions/cur_md_mba.html, 2007)

2.4.4 Duke University

2.4.4.1 입학허가

의과대학과 경영대학 각각에 입학허가 요구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며, 어느 한 단과대학에 재학중이라는 사실이 MD/MBA 프로그램 입학에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의과대학에서 MD과정 2

년차 도중에 MD/MBA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4.4.2 기간: 총 5년

- 의과대학: 약 3.5년
- 경영대학: 약 1.5년

2.4.4.3 수업료

- 의과대학 MD과정은 약 \$36,880/년
- 경영대학 MBA과정은 약 \$39,350/년

2.4.4.4 교과과정

- 첫 2년간 MD과정을 이수한 후, 3년차가 되면 경영대학에서 MBA 과정 필수과목을 두 학기 동안 진행한다.
- 이후 다시 MD과정으로 복귀하여 약 6개월 동안 Epidemiology와 Public Health Study Program를 이수하게 되며, 4년차 나머지 기간에는 MD과정을 계속 진행하고, 동시에 잔여 MBA과정을 마무리한다. 그리고, 5년차 때는 의과대학에서 잔여 임상실습을 마무리한다.

2.4.4.5 학위수여

일단 MD/MBA 프로그램으로 입학한 학생은 두 단과대학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성공적으로 완수해야만 졸업이 가능하다.

(http://dukemed.duke.edu/Curriculum/Dual/dsp_PopUpWin.cfm?popuptext=dsp_MDM_BAProgram.cfm , 2007)

2.4.5 Dartmouth University

2.4.5.1 입학허가

의과대학과 경영대학 각각에 입학허가 요구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며, 어느 한 단과대학에 재

학중이라는 사실이 MD/MBA 프로그램 입학에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MD/MBA 프로그램에 가능하면 일찍 지원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2.4.5.2 기간: 총 5년 과정과 6년 과정 중 학생이 선택 가능

- 의과대학: 약 3.5년 (5년 과정), 4년 (6년 과정)
- 경영대학: 약 1.5년 (5년 과정), 2년 (6년 과정)

2.4.5.3 수업료

- 의과대학 MD과정은 약 \$36,050/년
- 경영대학 MBA과정은 약 \$42,990/년

2.4.5.4 교과과정

- 첫 3년간 MD과정을 이수한다.
- 4년차가 되면 경영대학에서 MBA 과정 필수과목을 두 학기 동안 진행한다.
- (5년 과정을 선택하는 경우) 잔여 MBA과정 및 MD과정을 각 대학에서 마무리한다.
- (6년 과정을 선택하는 경우) 5년차와 6년차때 경영대학과 의과대학에서 각 1년씩 잔여 MBA과정 및 MD과정을 마무리한다. 특히, 5년차 후 여름 기간 동안 경영대학 주관의 인턴십을 경험한다.

2.4.5.5 학위수여

일단 MD/MBA 프로그램으로 입학한 학생은 두 단과대학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성공적으로 완수해야만 졸업이 가능하다.

2.4.5.6 기타 사항

매년 MD/MBA 프로그램에 입학하는 학생들 중 2명을 선발하여 장학금 지원 혜택이 있다.

(<http://dms.dartmouth.edu/mdmba/>, 2007)

III. 한국형 MD/MBA 프로그램의 개발

3.1 의과대학 학생의 유형

현재 국내의 의학교육 시스템에 의하면, 고교 졸업 후 의예과부터 시작하는 6년제 의과대학에 입학하는 학생과 의학과에 편입하여 4년간 의학 교육을 받는 학생 및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4년간 의학 교육을 받는 학생으로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3.2 교육기간

2006년 가을학기부터 BK사업의 영향으로 국내에도 경영전문대학원, 즉 한국형 주간 MBA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시행될 당시에는 학교별로 짧게는 1년 과정으로, 길게는 2년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수학점은 약 45-60학점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점차 많은 학교들이 MBA를 쿠퍼제와 같은 방식으로 개발하여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따로 두지 않고 프로그램을 쉬지 않고 진행하여 학위 취득 기간을 1년으로까지 단축하려는 추세를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영대학 MBA 과정의 경우 가을학기과 봄학기에 수업을 진행하고 긴 여름방학이 존재하며, 취득에 걸리는 총 기간은 2년인 경우가 다수를 차지한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미국의 MD/

MBA 프로그램의 가장 많은 경우는 가을학기과 봄학기 동안 MBA 관련 필수과목을 이수하고, 추후에 한 학기 이수학점에 해당하는 선택과목들을 수강함으로써 경영 관련 부분을 마치는데 총 1년 반이 소요된다.

국내의 경우 경영전문대학원에서 수여되는 MBA를 취득하는데도 1년 밖에 걸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MD/MBA 프로그램의 경영학 관련 부분은 최대 1년이 넘지 않게 개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방학 등 쉬는 기간이 전혀 없이 집중 진행해야만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1년에 마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보다 더 단축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으며, 그렇게 될 경우 경영학 관련 부분의 교육 부실화가 우려된다. 또한, 의과대학에서도 1년 단위로 학년제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몇 개월을 더 단축하려고 하기 보다는 MD/MBA 프로그램의 경영학 관련 부분을 1년 동안 연속적으로 교육하는 대신 의료와 경영을 접목하는 특화된 과목을 많이 제공하여 기존의 MBA 프로그램과 차별화를 강화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게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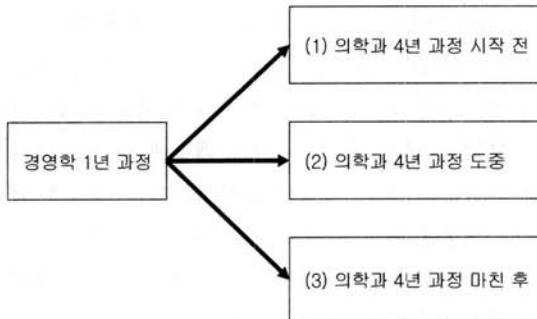
이렇게 될 경우 고교졸업 후 의과대학에 입학한 경우는 의학 6년 과정과 경영학 관련 집중 교육 1년 기간을 합하여 MD/MBA 프로그램은 총 7년으로 구성된다. 편입생과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생의 경우 의학 4년과 경영학 관련 집중 교육 1년 기간을 합하여 MD/MBA 프로그램은 총 5년으로 운영한다. <표 4>

<표 4> MD/MBA 프로그램 국내 도입시 교육 기간 분류

	의학 교육 기간	경영학 교육 기간	총 교육 기간
고교졸업 후 6년제 의과대학 입학	6년	1년	7년
학사 편입	4년	1년	5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4년	1년	5년

3.3 교육과정 이수 시기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국내의 경우 MD/MBA 프로그램의 경영학 관련 교육은 1년 동안 연속적으로 진행하여 마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며, 이 경우 경영학 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가능한 시기는 <그림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다.



<그림 3> MD/MBA 프로그램 국내 도입시 경영학 관련 교육과정 이수 가능 시기

먼저 '(1) 의학과 4년 과정 시작 전'에 경영학 관련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고교졸업 후 6년제 의과대학에 입학한 학생인 경우는 의예과 2년을 마친 후에 해당하며, 편입생 및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생의 경우 의학과 4년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한다. 이 경우 경영학 관련 과목을 먼저 마치게 되면 의학과 4년 동안 공백이 없으며, 의학과 4년을 마친 후 인턴, 레지던트의 전문의 과정에 들어갈 경우도 공백이 없기 때문에 의학 분야 학문의 연속성이란 측면의 장점이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의학 교육을 받기 전 경영학을 이수하게 되면 이것이 왜 필요한지 뚜렷한 목표의식이 없고, 어느 곳에 쓰이는지 모르기 때문에 의료 경영 분야에 대한 학습 동기 부여가 잘 안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 '(2) 의학과 4년 과정 도중'에 경영학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는 미국에서 시행되는 것처럼 기

초의학에 관한 과정이 끝나고 임상실습에 들어가기 전, 또는 임상실습을 일부분 마친 후에 의과대학을 떠나 경영대학에서 경영학을 1년 동안 배우는 경우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3) 의학과 4년을 마친 후' 경영학 과정을 1년간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2)와 (3)의 경우 기초의학을 마치고 또는 어느 정도 임상실습을 진행한 후 경영교육을 받기 때문에 의료 지식에 더하여 경영학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어 뚜렷한 목표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후 잔여 임상실습 과정 또는 전문의 과정으로의 연속성이 끊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3.4 이수학점 및 개설과목

현재 국내에서 일반적인 MBA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학교마다 45-60학점을 요구한다는 점과 미국의 주요 MD/MBA 프로그램이 경영학 부분 이수학점을 45학점 내외로 요구하는 사례를 고려할 때, 국내에 도입하는 MD/MBA 프로그램도 경영학 관련 과목을 45학점 내외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Cornell University의 MD/MBA 프로그램에서와 같이 기존에 경영학 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는 면제 시험 등을 통하여 일정 학점의 상한선(예, 15학점)까지를 인정을 해 줌으로써 총 이수 학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경영대학에서 이수해야 할 최소 학점 수는 학생별로 30-45학점 정도가 되도록 교과과정을 설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경영대학의 일반 MBA과정에 요구하는 필수과목 중에서 MD/MBA 프로그램에 보다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15-21학점 정도로 필수과목을 구성하며, 나머지는 의료와 경영을 결합한 다양한 선택과목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보통 MD/MBA 프

로그램에 채택 가능한 경영관련 필수과목으로는 재무관리, 회계원리, 마케팅, 의사결정론, 생산 및 운영관리, 경영정보시스템, 조직 및 인사관리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의료와 경영을 연계한 선택과목으로는 <표 5>에서 소개된 과목들 중에서 학교별 목표와 사정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교과목 개설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별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의료경영 관련 기업이나 정부기관 등에 2-3개월 동안 인턴십 과정을 결합하는 경우, 이것에 6-12학점 정도를 인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IV. MD/MBA 프로그램의 국내 도입 가능성 및 고려해야 할 사항

MD/MBA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의과대학 교육과정 전, 후, 또는 중간에 경영대학에서 1년간 경영학 과정을 공부해야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MD/MBA 프로그램에 대한 의과대학 학생들의 수요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심포지엄 토론에서 다수를 이루었다. 경영학 과정을 1년 동안 연속으로 진행하지 않고, 의학사 4년 과정 중간 중간에 경영학 과목을 부분적으로 이수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본 연구에서 인터뷰한 의과대학 교수 및 재학생들은 회의적이었는데, 그 이유는 현행 의과대학 교육과정 하에서는 거의 모든 학생이 졸업 후 의사가 되는 것만이 최대 당면 목표이며, 과중한 의과대학의 학습량에 치쳐서 경영 및 사회분야 학문을 추가로 습득하는 것에 관심과 여유를 가지고 있는 의과대학 학생이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미국과 같이 MD/MBA 프로그램을 도입하더라도 이 과정에 입학하는 학생의 수요가 많지 않을 가능성이 단기적으로는 높다. 또

한, 학교측에서는 프로그램에 입학하는 소수의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의료와 경영이 결합된 특성화 교과목을 개설하는 것이 자원의 배분 및 경제적 측면에서 타당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

미국의 경우 MD/MBA 프로그램이 성숙 단계에 진입한 학교가 많기 때문에 이 과정을 가르칠 다양한 배경의 교수진을 확보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실제 MD-MBA, MD-MPH(보건학석사), MPH-MBA, PHD-MBA 등 다양한 학위를 소지한 교수진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MD/MBA 프로그램에서 의료와 경영이 결합된 다양한 특성화 교과목을 가르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위에서 언급된 복수 학위를 소지한 교수진의 부족으로 인해 이 프로그램이 도입되더라도 초창기에는 의료와 경영을 결합한 교과목을 가르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영대에서 전통적인 경영학 관련 과목만을 강의할 경우 기존의 MBA 과정과 MD/MBA 프로그램의 차별화가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

의과대학 재학생들이 힘든 의학과정의 교육중에 MBA 학위를 동시에 취득하고 졸업하는 것이 과연 더 효율적이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만약 졸업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원의들이 병의원을 운영할 때 접하게 될 경영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존재 목적이라면 MD/MBA 프로그램은 필요 이상의 학위 과정이 될 수 있다고 심포지엄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병의원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단기 강좌 등은 의과대학 교과과정 중에 혹은 학회나 연수 때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MD/MBA 프로그램은 대형병원의 경영진이나 의료 관련 정부기관의 정책입안자, 민간 의료 및 제약회사의 경영진, 보험회사의 설계사, 의료전문 컨설팅기업의 컨설턴트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존재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데, 이들이 의과대학 재학 시절에

〈표 5〉 MD/MBA 프로그램 국내 도입시 가능한 선택과목 리스트(안덕선 외, 2004)

과목명	과목 내용
보건경제학 (Health Economics)	보건정책의 기초가 되는 보건경제학의 기초에 대해서 강의한다. 미시경제학의 기법을 활용하여 의료공급자, 환자, 의료기관의 행태에 관해 분석한다. 경제학적인 모델링과 시스템분석 및 계량 경제학적 기법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다.
병/의원 경영관리 (Health management)	병원의 방침이나 목적을 총괄적으로 진행 성취시하며 병원내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정당한 방법을 통한 영리추구를 할 수 있도록 조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최근 의료기관들이 직면하고 있는 경영적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예상되는 21세기의 병원 조직 구조 개혁 및 조직 간의 합병과 제휴 등에 대해 살펴본다.
의료산업과 경영 (Health Services Management and Policies)	의료경영을 처음 전공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의 구성요소와 특성에 대해서 소개한다. 의료재원조달체제와 전달체제의 구성 및 개혁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논의한다. 의료정책의 효율성과 형평성,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역할, 조세 및 재정정책 등과 아울러 병원의 조직적 특성, 우리나라 의료산업의 구성과 전망 및 21세기를 대비한 의료경영인의 역할 등에 대해 강의한다.
의료서비스 질 경영 (Quality Management of Health Care Services)	병원에서 의료서비스 질이 가지는 전략적 중요성에 관해 체계적으로 소개한다. QC, TQM 및 QA 등의 기법을 중심으로 한 고객 지향적인 경영을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능력 배양에 목적을 둔다. 일반기업과 병원에서의 사례를 포괄적으로 학습한다.
병/의원 시설계획(Health Care Institute plan)	병·의원 건축과 시설을 위한 기본지식을 습득하고, 실제로 적용해 본다.
병/의원 경영전략 (Health Business Strategy)	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기관의 전략계획 수립에 필요한 이론과 기법에 대해서 소개한다. 다양한 사례 및 외부전문가의 강의를 통해서 학생들은 의료기관에서의 전략적 의사결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만족시켜야하는 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병/의원 지휘 감독 (Health Care Supervision)	병원 조직의 바람직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 내의 여러 집단 또는 개인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촉진하는 능력인 리더십을 기르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교육방법은 사례중심(Evidence Based Technique)방법을 기초로 한다.
협상(negotiation)	협상의 개념 및 과정을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협상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다양한 협상사례에 대한 토론 및 역할극(role play)을 통해 실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준다.
의료제도와 보험(Health Care System and Insurance)	보험의 원리 및 의료재원 조달의 다양한 방법을 소개한다. 의료재원 조달의 다양한 대안을 형평성, 위험분산, 효율성, 의료지출 증가 및 의료기술의 확산 등과 관련하여 논의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의료개혁의 대안을 평가한다.
병원재무관리(Health Care Financial Management)	병원의 수익 및 비용구조에 대해서 분석하고 예산 및 재원조달의 원칙과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강의한다. 의료기관의 세무문제, 자산관리, 리스와 구매의 문제 및 IMF이후 재정적 문제에 대해 분석한다.
병·의원 경영 혁신 사례 워크숍 (Health Care Financial Management)	실제 병원을 경영하고 있는 개인가와 만남을 통해 실제 사례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몇 가지 사례들을 토대로 병원경영의 현실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본다.

MD/MBA 복수학위과정을 마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의학과정만 마치고 의료계와 사회에 진출하여 경험을 쌓아 가며 필요성을 느낀 추후에 MBA나 MPH 등의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인지에 대해 더 상세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V. 결론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는 먼저 국내와 미국 의료계에서 증가하는 경영학의 수요를 중심으로 한 변화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MD/MBA 프로그램의 유형 및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이중 대표적인 학교들의 입학절차, 기간, 수업료, 교과과정, 졸업요건 등 세부사항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의 의과대학과 경영대학 교육 시스템의 특성을 감안하여 국내에 MD/MBA 프로그램을 도입할 경우 교육과정 등의 세부사항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 제시하였으며, 또한 이 프로그램이 도입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과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주요 이슈를 정리하였다.

성공적인 MD/MBA 프로그램의 도입과 정착으로 인한 가장 큰 영향은 의학과 경영학 지식을 모두 갖춘 고급 인재 배출의 결과로 의료경영에 관련된 주요 분야가 전문화가 된다는 사실이다. 현재는 많은 경우 의사 출신의 비경영 전문가에 의해 연간 예산이 수천억원에서 조단위에 육박하는 대형 의료원이 운영되고 있지만, 향후 의료와 경영에 두루 경험과 지식을 소유한 전문가가 운영을 하는 CEO 식 체제가 정착된다면 시스템의 효율화, 자원 배분의 적절성, 의사결정의 합리성 등으로 대형병원의 의료 경영이 보다 전문화 될 것이다. 대형병원 뿐만 아니라 중소병원들도 전문가에 의해 각각의 규

모에 맞게 효율적으로 적절한 경영기법을 도입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추게 되어 궁극적으로 도산율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또한, 의료와 경영의 전문 지식을 소유한 인재들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 기관의 고위 관리로 진출하여 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면, 그 사회적 영향력은 지대할 것이다. 그리고, 제약회사나 의료-바이오-실버 산업 관련 제품과 관계된 민간기업의 규모와 기업의 숫자를 고려할 때 의료와 경영의 전문가가 가지는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적인 관점에서 MD/MBA 프로그램이 가지는 중요성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길을 재학 시절 미리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의과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획일적으로 모두 의과대학의 커리큘럼에 따라 의학 전공지식을 배우고 전문의 수련과정을 거쳐 병의원의 개원의사, 또는 의과학자, 의학교육자로만 양성되었다. 그러나, 의과대학 재학생들에게 일찍부터 경영학을 접할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관심있는 이들에게 의료 경영 분야로 진출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 의사로서 경험을 한참 쌓은 후 필요에 의해 나중에 고위자과정 등을 통해 재교육을 받는 현재의 방식보다, 의과대학 재학 시절부터 관심있는 학생들에게 의료경영 분야의 교육을 시키고 배출해 낸다면 보다 젊은 의료경영 전문가들이 관련 분야 각계 각층에 진출할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며 그 영향은 지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전 장에서 언급된 여러 예상 문제점에 추가하여, 현재는 경영전문대학원과 의학전문대학원이 국내에 정착하려는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MD/MBA 프로그램이 조속히 도입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업계가 사회에서 가지는 영향력이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가 지속되고, 대형 및 중소병원, 의료 관련 정부 기관

및 민간 기업의 경영진 등에서 의학 및 경영학 지식과 경험을 고루 갖춘 고급 인재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결국 국내에도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MD/MBA 프로그램의 도입이 불가피한 시점이 올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MD/MBA의 고급 지식과 경험을 갖춘 졸업생들의 차별성이 부각되고 투자 시간과 비용 대비 그 가치가 사회에서 인정을 받게 된다면 MD/MBA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물론 이러한 성공적 정착의 기본 조건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의과대학과 경영대학의 여건 및 능력과, 호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과 조율을 통해 MD/MBA 프로그램을 성공시키겠다는 강한 의지일 것이다.

참고문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6), 전국 종합병원·병원·의원 자료.
- 국민일보, "의료계 의사들도 CEO 감각 필요"...생존 불안에 MBA 열풍 분다," 2006.4.3.
- 대한병원협회 (2007.10), 병원 도산율 보도자료.
- 매일신문, "현직 의사 미국 MBA 땀...송중원 김앤송성형 외과 원장," 2006.12.19.
- 메디컬투데이, "의사도 경영학 배워야 산다"...의대는 경영학 수업 중?," 2006.12.22.
- 메디컬투데이, "의사가 병원장 하는 시대, 간다," 2007.5.25.
- 안덕선, 장하성, 이영미 (2004), 의학사 및 경영관리학 석사 복합과정 개발 연구, 학술진흥재단 대학교육과정개발 연구지원사업 최종보고서.
- 이코노믹리뷰, "기रो에 선 병원 - 우리의 살 길은 변신," 2006.8.16.
- 최희주 (2007), "미래의 병원과 의사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야 하는가?," 중소병원이사회 특강.
- 한국서비스연구소 (2006), 의료 서비스 교육 자료.
- Bodenheimer, T. and Casalino, L. (1999), "Executives with white coats—the work and world view of managed-care medical directors,"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41, pp.1945-1948, pp.2029-2032.
- 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 (2007), Combined MD/MBA Programs, <http://www.aamc.org/students/applying/programs/start.htm>.
- Columbia University 공식 홈페이지 (2007), http://www2.gsb.columbia.edu/students/MD-MBA_handbook.pdf.
- Cornell University 공식 홈페이지 (2007), http://www.med.cornell.edu/education/admissions/cur_md_mba.html.
- Dartmouth University 공식 홈페이지 (2007), <http://dms.dartmouth.edu/mdmba/>.
- Devlin M. (1999). Medical students pursue MBAs concurrently with MDs, *The Daily Free Press*, Boston University.
- Duke University 공식 홈페이지 (2007), http://dukemed.duke.edu/Curriculum/Dual/dsp_PopUpWin.cfm?popuptext=dsp_MDMBAProgram.cfm.
- Flood, A. B., Zinn, J. S., Shortell, S. M., Scott, W. R. (2000), *Organizational performance: managing for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In: Shortell, S.M., Kaluzny, A. D. (eds), *Health Care Management: Organization Design and Behavior*, 4th ed., Albany, NY: Delmar Thompson Learning, pp.356-389.
- Harvard University 공식 홈페이지 (2007), <http://www.hbs.edu/mba/academics/mdmba.html>.
- Larson, D. B., Chandler, M., Forman, H. (2003), "MD/MBA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Evidence of a Change in Health Care Leadership," *Academic Medicine*, 78(3), pp.335-341.
- McNeil, B. J. (2001) "Shattuck lecture: hidden barriers to improvement in the quality of care,"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45, pp.1612-1620.
- Nolan, T. W. (2000) "System changes to improve patient safety," *BMJ*, 320, pp.771-773.
- Reinertsen, J. L. (1998), "Physicians as leaders in the improvement of health care systems," *Annals of Internal Medicine*, 128, pp. 833-838.
- Shortell, S. M., Zazzali, J. L., Burns, L. R., et al. (2001) "Implementing evidence-based medicine: the role of market pressures, compensation incentives, and culture in physician organizations," *Medical Care*, 39 (suppl), I62-I78.

The MD/MBA Dual Degree Program: Analysis of the Global Cases, and Possibility of its Implementation in Korea*

Seongmoon Kim**

Abstract

Medical schools in Korea have traditionally focused on educating students to pursue careers mainly in clinics, hospitals, and laboratories. However, there is a pressing need for healthcare leaders who possess both clinical credibility and managerial excellence in such areas as health-related government agencies and private corporations in biotechnology, pharmaceutical, medical-devices, health-insurance, and healthcare consulting. In recognition of such growing need in today's world for specialists who are fostered in the intellectual disciplines and practices of medicine and management, MD/MBA dual degree programs, which have been successfully implemented in more than one-third of medical schools in the U.S., are recently drawing attention in Korea. This paper first examines a recent trend toward increasing managerial demand in the domestic and global health-related industry. Then, several representative MD/MBA programs in public and private schools in the U.S. are investigated, including program growth, application and admission requirements, curriculum and degree requirements, and program leadership and organization. Based on this case analysis, we present a possible MD/MBA program that is tailored to medical and business schools in Korea. We discuss potential obstacles and issues to be considered in order to successfully implement MD/MBA programs in Korea. Lastly, if MD/MBA programs are implemented in Korea, we estimate the clinical and social impact on both the private and public arenas and anticipate the future prospects.

Key Words: MD/MBA, dual degree program, business school, medical schools

* This work was supported by *Korean Academic Society of Business Administration*. Based on the partial contents of this paper, a presentation was given at the 2007 Spring Symposium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Business Administration*.

** School of Business, Yonsei University(kimsm@yonsei.ac.kr)